

통역 스터디 현황과 학습자 인식: 학부생 스터디를 중심으로*

허지운(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통역 스터디는 통역 교육 및 학습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 활동이다. EMCI(European Masters in Conference Interpreting)는 1년 400시간의 수업 참여 외에 3,000-5,000시간에 달하는 학습자 주도의 의도적 통역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Wang, 2015, p. 66). 운동이나 악기 연주가 그러하듯 통역도 스킬 연마를 통해 실력을 높일 수 있기에 수업 시간 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통역 스터디는 혼자서 연습하는 다른 많은 활동들과 달리 두 명 또는 세 명 이상의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 나아가 통역 스터디는 단순히 연습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구성원 간에 서로의 통역을 들어 주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회적 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다른 연습 활동과 차별화된다.

통역 실력 향상에 필수적인 통역 스터디는 대학원 과정에서는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박성주, 2019; 임순정, 2014; 편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1038817).

혜원, 2021). 그러나 학부 과정의 스터디를 조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전문 통역사 육성이 주된 교육과정 목표인 통번역대학원에서 통역 실력 향상을 위해 통역 스터디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내 학부 통번역 과정도 한국외대를 비롯한 7-9여 개의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이경희, 2020; 이상빈, 2015), 그중 주요 3개 학부 과정은 통번역 전공자 졸업 요건으로 실습을 다루는 통역 수업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이상빈, 2015, p. 25), 학부생들의 통역 스터디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고 통역 실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 방향을 논의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부 통번역 전공자들의 통역 스터디 현황과 인식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한 스터디 방향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학부 통번역 과정은 전문 통번역사 육성에 집중하는 전문 대학원 교육 과정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언어, 통번역, 문화 능력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를 기초로 하고 있다(안수경과 남원준, 2023, p. 286). 선행연구, 학습자 및 교강사 대상 설문 조사를 기초로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 학부 학습자들은 통번역 기초역량, 실용영어,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통번역 실무 경험, 이론교육, 전문 통번역대학원 진학 준비 등에 대한 교육 니즈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김련희, 2011; 남원준, 2009; 조성은, 2007).

한편 안수경과 남원준(2023)은 팍테(PACTE)그룹의 번역능력 모델을 바탕으로 경희대, 동국대, 한국외대 통번역 학부과정의 통번역교육 목표를 분석하였다. 3개 학부과정은 전반적으로 통번역 능력보다 언어 능력 함양을 강조하며 학년별로 저학년은 언어 수업, 중간 학년은 통번역 수업, 고학년은 주제지식 수업을 배치하고 있다(안수경과 남원준, 2023, p. 296). 이 연구는 통번역교육의 인지과정 층위를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안의 단계로 나누고 각 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는데, 3개 학교 모두 3, 4학년 과정에 분석, 평가(문제해결 및 자가/동료 평가)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통번역 실

습 수업들을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안수경과 남원준, 2023, pp. 299-307). 해당 연구에서 저자들은 학부 과정이 대학원 과정에 비해 난이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전문대학원의 입문과정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부 과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일부 과정을 심화 단계까지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안수경과 남원준, 2023, p. 308).

학부 과정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통번역 심화단계까지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할 경우 학습자들의 통번역 연습과 자가 및 동료평가 등의 학습활동이 더욱 요구될 것이며, 이는 통역 수업뿐 아니라 별도의 스테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역 스테디는 통역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습이자 협동학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임순정, 2014). 대학원 과정에서 통역 스테디는 보통 학습자 간 2인 혹은 3인 이상의 그룹을 이루어 진행되는데, 상대에게 낭독해줄 텍스트 및 용어 준비, 텍스트 낭독, 통역 실습, 동료 피드백, 추가 토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통역 스테디는 단순히 많은 양의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보다 통역 스테디의 기본 취지는 통역을 직접 해보고, 이후 상호 건설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토의를 함으로써 서로의 통역 실력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임순정, 2014; 편혜원, 2021).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통역 스테디는 혼자서는 터득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식과 언어적 표현 및 해법을 다양한 스테디원으로부터 배우고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체득할 기회가 되어 통역 실력 향상에 매우 유익하며, 이러한 통역 스테디의 장점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지운, 2023).

통역 스테디에 관한 연구는 그간 전문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임순정(2014)은 통번역대학원 한불전공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역 스테디 실태에 관한 조사를 기초로 학습자들이 다수의 통역 스테디 그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텍스트 준비 및 피드백 고충을 기술하였다. 학습자들은 통역 스테디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동료가 스테디 준비를 소홀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피드백이 많거나, 학습성고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동료 피드백을 비롯한 스테디의 효용성이 의심된다며 고충을 호소하였다(임순정, 2014). 그런데 이러한 불신은 결국 개별학습으로의 선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스터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임순정, 2014). 그만큼 동료 피드백과 이를 제공하는 스터디 파트너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이 스터디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사항으로는 상호보완적 관계, 성실한 스터디 준비 자세, 배려하고 존중하는 피드백을 들 수 있다(허지운, 2023).

앞선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 스터디의 핵심은 피드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드백은 통역 시간의 2-3배 또는 스터디 시간의 절반 가량의 시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박성주, 2019, p. 176; 임순정, 2014, p. 208). 그만큼 양질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번역대학원 1학년 학생의 피드백 양상을 분석한 편혜원(2021, pp. 83-84)에 따르면 학습자 피드백 중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전략 피드백(27.30%)의 약 두 배에 이르렀고, 98.27%가 부정적 피드백으로 잘못된 부분 지적에 치우쳤는데, 학생 실력에 따라 부정확한 지적도 상당 부분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다만, 자신의 실력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순 오류 지적을 넘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건설적 피드백을 위한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편혜원, 2021, p. 84).

올바른 동료 피드백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수업 시간 교수자 피드백 외에 스터디 시간 동료 피드백을 위한 체계적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박성주(2019)가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안한 동료 피드백 유형 분류체계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박성주(2019, p. 191)는 피드백을 크게 피드백 성격과 피드백 유형으로 구분하고, 피드백 성격 밑으로 문제해결 여부(해결, 보류, 미해결), 가치판단 여부(칭찬형, 비판형), 원인분석 여부로 세분하였고, 피드백 유형 밑으로는 텍스트 영역(내용, 커버리지, 어휘/표현), 비텍스트 영역(태도, 음성, 유창성)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통역 피드백은 그룹 스터디에서 진행되는 만큼 단순히 정보전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통, 감정, 관계 등의 정서적 측면이 상당히 작용한다. 즉시성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을 요하는 통역의 특성상 통역 수행 자체가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인데, 스터디에서는 통역 수행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한 피드백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학습자 불안감

이 가중될 수 있다. 박혜경(2018)은 통번역대학원생 대상 조사를 통해 통역 학습자들이 가진 피드백 불안을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피드백의 표현 방식 또는 피드백하는 사람의 표정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였고, 교수의 평가에 대한 불안감도 높지만 동료 학생들의 피드백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혜경, 2018). 그럼에도 학습자들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불안감을 이기는 정신력도 키워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드백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경, 2018). 다만 감정이 섞인 인격 모독적 피드백이나 구체적이지 않고 무성의한 피드백은 학습 동기 저하로 이어지므로 건설적 피드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박혜경, 2018). 학부 통번역 과정의 피드백 연구에서도 학습자 고충이 언급되었다. Lee(2016)는 학부 수업에서 평가척도 기반 학습자 동료 평가에 관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동료 평가에 대한 신뢰, 책임감 및 자신감도 보였지만 자신의 평가능력 및 평가척도 이해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하였고, 평가자 간 평가의 일관성 부족과 평가 피로감도 호소하여 동료 평가나 피드백에 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Lee, 2016). 맞춤형 피드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남원준(2023)은 학습자들이 기초 개념에 있어 깨달음을 얻으면 이후의 학습을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문지방 개념’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학습자 간 편차가 큰 학부 과정에서 맞춤형 피드백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통역 실력 향상에 있어 통역 스테디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과 더불어 스테디의 핵심인 피드백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부족한 학부 통역 스테디의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유의한 스테디 방향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통번역 전공 학부생의 통역 스테디 현황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 국내 학부 통번역전공 3, 4학년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20일-2월 28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 모집은 참가자 모집문 배포와 스노우볼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전원 20대로, 성별 구분은 여성 17명, 남성 3명이었고, 전공 언어는 전원 한국어-영어 조합이었으며, 이 중 한 명은 한국어-불어 이중전공을 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참가 의향을 피력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온라인 설문 링크 (surveymonkey.com)를 받아 설문 조사를 완료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 질문을 제외한 문항들은 반구조화 기반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참가자의 다채로운 의견을 수집하여 심층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설문 문항은 통역 스테디 방식(횡수, 자료, 구성 인원 등), 대면/비대면 스테디 장단점, 통역 피드백 방식(피드백 요소, 우선 순위, 선호/비선호 사항 등), 인구통계문항(연령, 성별, 학부 재학생 여부, 전공언어)으로 구성하고 최대한 상세히 기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총 23,940자에 달하는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정성분석 도구인 Nvivo 1.7.1. 버전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수집된 응답을 읽으며 소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하는 내용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엑셀 파워 쿼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키워드 분석도 진행하였다. 다만, 단일 키워드 중심으로 단순 빈도 순위를 집계하는 방식은 개략적 파악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기에(안수경과 남원준, 2023),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상기의 내용분석 방식을 응용하여 파워 쿼리를 통해 집계된 키워드 가운데 연관성 있는 키워드끼리 묶어 상위 카테고리 분류하고 카테고리별 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4장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4.1절에서 스테디 방식을 간략히 정리한 후, 4.2.4.4절에서는 키워드 분석과 정성적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4.1 통역 스테디 방식

스테디 횟수는 주 2회(6명)가 가장 많았으며, 주 1회(5명), 주 3회(3명), 주 4회 이상(2명), 전혀 하지 않는다(2명), 한 달에 한 번(1명)이 그 뒤를 이었다. 회당 스테디 시간은 1시간(6명), 2시간(6명), 3시간(2명) 순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1-2회, 회당 1-2시간 스테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테디 인원은 2인(9명)으로 구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인 이상(6명), 3인(4명), 혼자서 하는 1인 스테디(2명)가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2인 이상의 그룹 스테디를 하고 있고 드물게 혼자서 스테디 한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혼자서 하는 스테디는 통역 스테디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통역 스테디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 통역 스테디의 목적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세 명의 참가자가 시험대비 및 과제제출 목적으로 스테디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스테디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스테디 진행 절차를 종합하면 텍스트 준비, 사전정보 공유, 텍스트 낭독, 통역, 피드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피드백 진행 방식, 내용 공유 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특징이 있었다. 통역 단위는 다소 짧은 2-3문장 단위에서부터 30-40초 단위, 또는 1분가량 등 응답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무엇보다 통역 이후 피드백 시 협동학습적 측면이 강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단순히 피드백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녹음한 후 통역한 학생과 피드백할 학생이 함께 녹음본을 들어보며 자기객관화 분석을 수행한다는 응답, 사전에 각자 조사한 배경 지식이 실제 통역할 때 얼마나 활용도가 높았는지 통역 후 함께 논의한다는 응답, 스테디 이후 각자 개선할 부분을 문서화하고 취약한 표현들을 정리한 후 시험 일주일 전쯤 서로 공유하여 시험 대비 공부를 한다는 응답, 통역과 피드백 이후 최종 통역본을 함께 만든다는 응답을 통해 학부 학습자들이 협동학습적 접근을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역할 원문 텍스트의 경우, 기사문 등 문어 텍스트 낭독 방식 이외에도 TED 강의 영상, UN이나 WHO 등 공공기관의 공식 연설 영상, 국제회의 연설 영상, CNN 뉴스 영상, TED-Ed, VOA 음원,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영상, 아리랑 월드 채널 뉴스 등 영상 자료를 재생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절반에 달할 정도로 영상 자료를 적

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어 텍스트는 New York Times, The Economist, VOA, BBC, CNN 등 주요 언론의 기사문 중심이었고, 그 외 통역 수업에서 받은 교수자 자료, 분야별로는 정치 및 경제 자료가 언급되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기사문이나 연설문을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직접 작성한 3분가량의 자작 텍스트를 활용한다는 참가자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통역 텍스트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 방향은 영한, 한영 양방향을 연습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8명으로, 언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응답자까지 고려하면 학습자들의 스터디 언어 방향이 편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2 통역 스터디 장단점

통역 스터디의 장점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피드백, 언어적 요소, 자신의 약점, 배경지식, 실력, 도움, 스터디 파트너, 성장, 긴장 순으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통역 스터디가 해당 키워드와 연계하여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성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참가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
통역 스터디 장점

키워드 구분	n
피드백 (크리틱, 피드백, 지적, 칭찬)	17
언어 (단어, 표현, 영어, 한국어, 글로서리, 문장)	17
약점 (부족, 약점, 단점, 약습관, 실수, 한계, 고충)	10
배경지식 (배경, 주제, 정보)	9
실력	8
도움	7
스터디 파트너 (스터디원, 파트너)	6
성장 (발전, 성장, 개선)	5
긴장 (긴장, 불안)	4

응답자들은 스테디의 장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테디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였다. 응답자들은 혼자서 공부하기보다 여러 스테디원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양한 언어적 대안과 배경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유익하다고 밝혔고, 다른 사람의 통역 방식을 보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배우는 점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언어습관을 알게 되고 다양한 대안을 접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테디를 통해 통역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글로서리와 배경지식을 공부하고 스테디용 텍스트를 준비하며 연사 역할을 하는 과정이 공부가 되어 유익하다고 밝혔다. 스테디가 주는 긴장감 자체도 좋지만 긴장감으로 인해 유발되는 통역 발화 실수나 불안정한 시선 등의 습관을 파트너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그래도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저마다 공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흥미로운 단어들을 주위들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남의 언어를 훔쳐 오는 것만큼 재미나는 일이 또 없습니다. (참가자 2)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연사가 되어 보기도 하기에 영어와 한국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와 같은 읽기 연습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 5)

내가 부족한 통역 유형을 잘하는 파트너를 만나 그분 방식을 분석하면서 약점을 보완할 기회 마련. (참가자 19)

통역 스테디의 단점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감정, 주제분야, 사람, 크리티크, 어려움, 부족함, 실력, 텍스트 순으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해당 키워드들이 통역 스테디의 단점과 연계하여 자주 언급된 것인데 설문 응답 정성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참가자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표 2
통역 스테디 단점

키워드 구분	n
감정 (감정, 부담, 상처, 위축, 압박, 마음, 회의감, 두렵, 상할)	30
주제분야 (주제, 정치, 외교, 분야, 전문, 과학, 현안)	23
사람 (사람, 파트너, 친구, 학우, 상대)	20
크리틱 (지적, 충고, 피드백)	20
어려움	12
부족함 (부족, 실수, 한계, 제자리걸음)	8
실력 (실력, 실력차)	5
텍스트 (텍스트, 지문)	3

응답자들은 통역 스테디의 피드백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피드백을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 지배적인 탓에 친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까 걱정하여 피드백을 제대로 주지 못하거나, 반대로 상대의 피드백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등 피드백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서로가 아직 비전문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탓에,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해 줄 사람이 없고,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끼리 스테디를 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며, 특히 어려운 주제의 경우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경험이 많은 멘토가 스테디를 주관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통역을 하지 못했을 때, 실력차가 많이 나는 친구와 비교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주제지식이 부족할 때 느끼는 좌절감을 언급하여 학습자들이 스테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막막함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텍스트 및 자료 검색, 노트테이킹 등의 고충도 언급되었다.

아무래도 크리틱이 좋은 말은 안 나가다 보니 감정적으로 조금 상할 때가 있습니다. (참가자 14)

사이가 가까운 동기 혹은 선후배끼리 크리틱을 하다보니 객관적인 피드백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객관적인 크리틱에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참가자 17)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대와 실력의 사람들이 모여 스테디를 하다보니 실력이 향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역사님들 레퍼런스나 유튜브, 교수님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멘토가 스테디를 주관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가자 7)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표현력이 우수한 사람의 통역을 듣다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어느 정도의 센스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참가자 6)

이상으로 학부 학습자가 생각하는 통역 스테디의 장단점에 대하여 키워드 분석과 서술식 응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 4.3절을 통해 통역 피드백 선호 및 비선호 요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3 통역 피드백 선호 및 비선호 요소

통역 스테디 시 선호하는 피드백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내용 이해, 정확성, 전달성, 표현, 어휘, 문법, 누락, 적절성, 맥락, 구체성, 스테디 구성원, 태도 순으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어휘, 표현, 문법 구조, 분절 및 초분절적 특성에 대한 피드백을 응답자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정성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통역 피드백 선호사항

키워드 구분	n
내용이해 (내용, 이해, 의미, 뉘앙스)	39
정확성 (정확, 오역, 틀린, 잘못된)	27

전달성 (전달, 발음, 속도, 발성, 유창성)	27
표현 (표현, 매끄러움, 자연스럽, 간결)	26
어휘 (단어, 용어, 연어)	18
문법 (문법, 통사, 비문, 어순)	13
누락 (누락, 빠진, 놓친)	11
적절성 (적절한, 시의적절한, 적합한)	9
맥락 (맥락, 문맥, 연결성)	7
구체성 (디테일, 숫자, 세부)	7
스터디 구성원 (스터디원, 파트너)	4
태도 (태도, 성실성)	3

정성분석 결과에서도 키워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확성, 전달력, 표현, 문법 등이 피드백 선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자신이 피드백을 줄 때 선호하는 사항 위주로 기술하였지만, 이는 다시 상대 스터디원에게 기대하는 바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피드백 요소 중에는 의미 정확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후순위로 전달력, 어휘, 표현, 문법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일부 응답자는 문법/통사, 어휘 및 표현을, 그리고 한 명은 유창성을 최우선 순위로 본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스터디의 장점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피드백에 있어서도 협동학습적 측면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응답자들 절반 이상이 일방적 피드백에 그치지보다는 보다 나은 대안에 대해 스터디원들 간 토론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여, 건설적 피드백을 통해 실력 향상을 이루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통역 크리틱 요소는 크게 정확성과 전달력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 오역과 누락을 최우선 순위로 두기 때문에 통역에 연사가 낭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또는 내용 중에 누락한 부분이 없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를 지녔더라도 맥락상 더 적합한 단어나 표현이 있는지 스터디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대입해보는 방식으로 크리틱을 진행합니다. (참가자 17)

(1) 영한: 주술 호응, 원문 구조화, 지나친 직역 지적, 영어식 통역 지적

(불필요한 주어 살리기, 수동형 남발 등) (2) 한영: 문법(수일치, 관사, 시제 등), 원문 구조화, 구어체로 쉽고 간결한 정보 전달, 유용한 용어, set phrases 공유. (참가자 19)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면서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때도 TL의 "표현(terminology, commonly used expressions, register, etc.)"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참가자 9)

정답이 있는 것처럼 통역을 하고 피드백을 듣는 것보다는, 가능한 여러 다양한 옵션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이후의 통역 경험에서도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참가자 16)

통역 피드백 비선호 사항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전반, 단어/표현, 경직, 구체성, 문법 순으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비선호 피드백 목록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두루뭉술’을 포함한 ‘전반’과 ‘자기주장’, ‘강요’ 등 부정적 의미가 담긴 ‘경직’이었다.

표 4
통역 피드백 비선호사항

키워드 구분	n
전반 (전반, 전체적, 두루뭉술)	4
단어/표현 (단어, 표현, 워딩)	4
경직 (자기주장, 강요, 정답, 공격적)	4
구체성 (구체, 세세)	3
문법 (문법, 시제, 문장구조)	3

전반적으로 응답 중 비선호 사항에 대한 기술이 선호사항에 비해 적은 편이었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진 비선호 사항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막연한 칭찬만 하며 개괄적 평가만 내리는 두루뭉술한 피드백과 공격적이거나 일방적 지적으로 점철되어 감정을 상하게 하는 피드백이었다. 그 외 통역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끊고 크리티컬을 하여 방해가 되는 피드백도 비선호 사항이었다. 앞서 선호하는 피드백 방식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학부 학습

자들이 상당히 성숙한 피드백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 스터디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숙한 피드백으로 인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칭찬만 하는 피드백 비선호. 예시가 없고 두루뭉술한 피드백 비선호
(참가자 19)

너무 강한 자기주장형 크리틱은 비선호합니다. 확실한 Yes or No인 부분은 괜찮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가능성이 많은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강요보단 제안하는 방식의 크리틱 말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스터디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8)

통역을 하는 도중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통역이 완벽히 끝난 후, 평가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준 다음 차례대로 크리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을 하던 와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참가자 1)

이상으로 학부 학습자의 통역 피드백 선호 및 비선호 사항에 대하여 키워드 분석과 서술식 응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 4.4절을 통해 대면 및 비대면 스터디의 장단점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4 대면 및 비대면 스터디 장단점

대면 통역 스터디의 장점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현장감, 비언어 요소, 즉시성, 긴장감, 대면, 공감, 집중 순으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통역 스터디의 단점은 공간, 시간, 스터디 구성원, 비용, 잡담, 제약, 이동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역시 비대면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감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대면 스터디의 장점으로 많이 언급된 반면 시공간적 제약이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5
대면 스테디 장단점

장점	n	단점	n
현장감 (현장감, 실진, 실질, 실제, 비슷)	19	공간 (장소, 공간, 카페)	12
비언어요소 (제스처, 시선, 말투, 아이컨택, 어조)	16	시간	12
즉시성 (즉각, 빠른, 원활)	7	스테디 구성원	5
긴장감 (긴장, 압박)	6	비용 (금전, 비용)	4
대면 (얼굴, 만나, 마주)	6	잡담 (수다, 잡담)	4
공간 (공간, 스테디카페, 세미나실, 대여)	6	계약 (방해, 제약)	4
집중 (집중, 몰입)	3	이동 (이동, 오가며)	3

정성분석을 통해 구체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면 스테디를 하면 직접 만나서 스테디원 앞에서 통역 연습을 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장감 때문에 긴장감과 압박감도 느낄 수 있어 연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컨택, 자세 등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고 스테디원 간 의사소통 자체가 수월하고 직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 외 비대면에 비해 구성원들이 성실하게 스테디 약속을 지키는 점과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전달력이나 몰입감, 긴장감 면에서는 대면으로 진행할 때가 훨씬 실전 상황과 비슷해서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참가자 6)

직접 통역을 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통역 내용뿐만 아니라 고려되어야 할 제스처, 눈빛, 그리고 말투 등을 직접 보며 평가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1)

대면 스테디를 할 경우 스테디원들이 시간약속을 더 잘 지켰습니다. 스테디를 빠지거나 미루는 횟수도 대면 스테디가 더 적었습니다. (참가자

4)

대면 스터디의 단점에 대한 정성분석 결과도 키워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공간적 제약에 응답이 집중되었다. 스터디 장소까지 이동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 약속 잡기가 쉽지 않고, 대면 스터디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공간 대여 비용까지 별도로 발생하며, 잡담 시간이 길어지는 점이 단점으로 언급되었다.

다만 장소 섭외와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참가자 14)

대면의 단점은 만남장소까지 걸음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공간대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가자 9)

대면 스터디의 경우 잡담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참가자 13)

대면 스터디는 현장감과 원활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시공간적 제약 등 편의성 면에서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비대면 플랫폼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체감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비대면 통역 스터디의 장점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시공간이 2위에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온라인 화상 플랫폼, 시공간, 자료, 자료공유, 제약, 편의성, 스터디 구성원, 연사 순으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비대면 스터디 장단점

장점	n	단점	n
온라인 화상 플랫폼 (화상채팅, 화상회의, 줌, Webex, Google Meet, 카카오톡)	21	온라인 화상 플랫폼 (화상, 줌, Webex, Google Meet, 그룹콜)	15
시공간 (시간, 공간, 장소, 이동)	19	네트워크 문제 (네트워크, 끊김, 지연)	12
자료 (자료, 문서화, 파일)	14	시공간 (시간, 장소, 공간)	11

텍스트, 콘텐츠)			
자료공유 (화면공유, 공유)	13	음질 (음질, 오디오, 소리)	9
제약 (제약, 제한)	9	공유 (공유, 화면공유)	7
편의성 (간편, 편리, 편하기)	5	제약 (제한, 한계, 제약)	7
스테디 구성원 (스테디원, 파트너)	4	차질 (차질, 원활하지, 불편, 어려움)	7
연사	4	긴장감 (긴장, 압박)	5
		집중 (집중력)	4
		자료 (자료, mp3, 파일)	3
		비언어 (눈빛, 시선, 제스처)	3

정성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줌, 구글미트, 웹엑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외 소통 수단으로 카카오톡, 화상채팅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시공간 제약이 적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외에 화면공유, 피드백 문서화 정리의 편의성, 화이트보드 활용 등 자료나 정보 공유 편의성에 대한 언급도 다수 있었다. 비대면 실전 통역을 대비하는 연습 기회라는 의견과 함께 가상배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전 환경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언급되었다. 집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접속의 편의성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테디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수 의견이지만 불필요한 잡담이 줄어드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장소 이동 시간이 줄어들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월하게 노트북에만 접속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스테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비대면 스테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참가자 1)

대면 스테디와 다르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화면공유를 통해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와 어느 부분이 어색했는지를 지문에 표시를 해서 공유합니다. 표시가 된 지문파일은 스테디 후 파일로 저장해 파트너에게 보내줍니다. ... 가상배경을 사용하여 지문의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대면 스테디와 달리 사람이 적어 통역연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4)

비대면의 경우 듣기 파일 자체를 더욱 꼼꼼히 공부하며 듣기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으며 최근 늘어나는 비대면 통역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가자 18)

비대면 통역 스터디의 단점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온라인 화상 플랫폼, 네트워크 문제, 시공간, 음질, 공유, 제약, 차질, 긴장감, 집중, 자료, 비언어 순으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한편 정성분석 결과 네트워크 장애와 오디오 문제 등 기술 문제가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비대면 방식이 편리성의 장점은 있지만 인터넷 접속 장애, 네트워크 끊김, 네트워크 딜레이, 오디오 간섭, 음성 끊김 문제 등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 문제는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화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눈빛, 제스처, 노트테이킹 등 비언어적 요소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것에 신경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긴장감이 떨어지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단점은 두 명이 넘어가면 진행이 번거롭다는 점, 송신이 원활하지 않으면 특히 통역 같은 경우 말이 끊기거나 딜레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역의 특성상 이미 부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듣는다고 해도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3)

방 안에는 혼자 있기 때문에 자세나 눈맞춤과 같은 통역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통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은 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참가자 5)

대면 스터디 보다 확실히 시간과 장소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시간 약속의 개념이 조금 떨어져 스터디 시간이 많이 유동적입니다. 스터디원들의 사정으로 인해 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 8)

이상으로 통역 스터디 현황에 대하여 절차 및 방식, 장단점,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키워드 분석과 설문 응답 내용 분석을 진행

하였다. 다음 5장 논의 및 결론을 통하여 종합적 분석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5. 논의 및 결론

학부 통역 학습자들의 스테디 방식과 스테디 관련 선호·비선호 사항은 상당 부분 전문 통번역대학원 학습자들과 흡사하였다. 다만, 스테디 방식의 경우, 스테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스테디 텍스트 중 영상 자료나 기사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디 빈도가 적은 것은 스테디 목적이 상시적인 통역 실력 향상보다 시험과 과제 대비에 있고, 학부 특성상 통번역 실습 과목 비중이 작으며, 학부 교육과정 목표가 언어 및 문화 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역 스테디를 통해서 통역 실력뿐 아니라 기본적인 언어능력, 스피치 능력, 텍스트 편집 및 작성 능력, 비언어적 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력, 다양한 주제 지식 등 학부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 과정에서도 통역 스테디를 적극 권장할 만하다. 스테디 텍스트의 경우, 다양한 스테디 텍스트를 직접 작성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응답도 있었지만 대체로 뉴스 기사나 영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학습 주제가 시사 뉴스로 국한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 및 텍스트 유형으로 원문 텍스트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 학습자들은 통역 스테디를 자신의 통역 실력 향상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고 대체로 통역 스테디의 중요성과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여러 스테디원과의 스테디를 통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점과 대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고 통역사, 연사, 피드백 제공자 역할을 골고루 취하면서 다각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스테디원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자료공유를 하는 등 협동학습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 피드백 방식에 있어서도 통역의 중요한 요소인 내용 정확도, 어휘, 문법, 전달성 등을 우선으로 보는 등 적절한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간혹 내

용 정확도보다는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인 전달력이나 유창성을 우선으로 보거나 지엽적 요소를 우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핵심 피드백 요소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통역의 현장감과 실전감을 체험하고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연습 및 피드백을 중시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점을 대면 통역 스테디의 장점으로 꼽았다. 물론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대면 통역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스테디도 장점이 있지만 실전통역의 긴장감과 압박감을 체험하며 연습하기에는 대면 통역 스테디가 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역 스테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스테디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겪는 고충인 구체성이 떨어지는 피드백, 공격적이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피드백, 피드백의 부적절한 타이밍 등은 학습자 간 스테디 프로토콜이나 기본 규칙 인식에 있어 편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구나 감정이 섞이거나 무성의한 피드백은 구성원간 신뢰도와 스테디 효용성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려 학습동기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박혜경, 2018; 임순정, 2014). 스테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2인 이상이 밀접하게 진행하는 협동학습인 만큼 스테디 운영 및 피드백의 체계성을 갖추고 정서적 교감까지 놓치지 않도록 공동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Lee(2016)의 연구에서도 학습자간 동료 평가 도구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 스테디 규칙에 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 결과와 2장 선행연구에서 다룬 피드백 요소를 바탕으로 다음의 통역 스테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자 한다(<표 7> 참조).

표 7
통역 스테디 체크리스트(순차통역)

구분	분류	항목
스테디 구성	스테디 인원 구성	• 2인 이상
	파트너 선정	• 최대한 다양한 동료와 스테디하여 다양한 시각 확보
	스테디 횟수	• 주 1회 이상

	회당 스테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간 이상
	대면/비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 및 비대면 방식 모두 골고루 활용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사, 통역사, 피드백 제공자 역할 교대
사전 준비	스테디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역 텍스트(ST) 준비, 주제 관련 배경지식 학습 및 정리, 용어 및 표현 정리
	통역 텍스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문, 연설문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활용 다양한 주제를 다루도록 함 논리를 갖춘 텍스트가 되도록 편집 어휘, 논리, 문장구조 등을 수정하여 되도록 즉흥 담화 형식으로 구어화(oralize)함(임순정, 2014)
	텍스트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 된 텍스트 음성, 영상 파일, 스트리밍 서비스 등 멀티미디어 활용
스테디 수행 단계	통역 시작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역을 위한 글로서리, 배경지식 공유 및 브레인스토밍
	통역 시작: 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통역 시 녹음하기
	통역 시작: 피드백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 통역 시 통역 발화 중 피드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받아 적기 피드백 사항 표시
	피드백 타이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 하나의 통역 단위(꼭지)의 원문을 모두 통역한 이후 피드백 제공
	피드백 항목 (박성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오역, 명료성, 문맥 커버리지: 누락/생략, 추가 어휘/표현: 오류, 낱어, 어휘 문법: 통사, 문법, 문장구조 텍스트 구조: 일관성, 결속성, 연결성 비텍스트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도: 시선, 자세 음성: 목소리, 발음, 억양 유창성: 발화 속도, 휴지, 머뭇거림 노트테이킹
	피드백 에티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 소감만을 전달하기보다 통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해결책 및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건설적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시하여 장점의 긍정적 강화와 단점의 건설적 개선이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 • 피드백 제공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함 • 피드백 시 표현이나 말투가 공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스터디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서로 배울 점이 있는 스터디가 되도록 할 것
	추가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해결책, 유의점 등에 대해 스터디 구성원 간 추가 토론
사후 정리	스터디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자신의 통역 녹음 들으며 전사 • 자신의 통역을 복기하고 스터디 중에 받은 피드백과 대안 등 정리

통역 스터디는 교수자가 참여하지 않고 학습자 간에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순수한 학습자 주도 연습이다. 본고의 설문 조사에서 학습자들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정답이 없는 학습에 불안감을 갖거나 스터디 구성원 간 실력차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역 스터디의 취지가 즉각적인 정답을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정답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대안과 해법을 찾는 방법을 터득하는 긴 여정을 밟는 데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 본고는 선행연구와 학습자 설문응답을 바탕으로 통역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다. 통번역 대학원 학습자 또는 전문 통역사들에게는 이 항목들이 익숙하겠지만 통역 공부를 처음 시작하거나 스터디가 익숙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스터디 정보를 찾는 것조차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통역 스터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기에 본 연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면 통역 학습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통역 스터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통역 스터디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물론 본 연구는 전공언어가 한영으로 편중된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

여 진행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직 연구가 부족한 학부생을 위한 통역 스테디를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고의 체크리스트는 비단 학부생뿐 아니라 전문 통번역대학원 학습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후속 연구를 통해 보강하여 학습자 주도 통역 스테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9-52.
- 남원준. (2009). 학부 통번역교육에 관한 일고찰: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1), 21-51.
- 남원준. (2023). 맞춤형 피드백의 가능성 탐구 — 학생별 ‘문지방 개념’ 발견을 위한 노력. 통번역학연구, 27(1), 49-83.
- 박성주. (2019). 일한 순차통역 동료피드백의 유형 분류 —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분석에 적합한 분류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46, 175-197.
- 박혜경. (2018). 통역 피드백과 학습자 불안에 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22(3), 117-143.
- 안수경과 남원준. (2023). 국내 학부 통번역학과에서는 무엇을 교육하는가?: 학과 교육목표, 교과과정, 교과목별 강의계획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285-319.
- 이경희. (2020). 국내 학부 통번역 교육과정 현황 고찰. 번역학연구, 21(4), 115-150.
- 이상빈. (2015). 국내학부 영어 통번역 교육훈련의 문제와 해결방향: 한국의외대, 동국대, 경희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3), 21-44.
- 임순정. (2014). 통역 학습자들의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분석: 그룹 스테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3), 181-220.
- 조성은. (2007).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163-191.

- 편혜원. (2021). 예비 통역사들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 한불 순차통역의 피드백. *통번역교육연구*, 19(4), 69-90.
- 허지운. (2023).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메타버스 연계 게임화 기반 통역 교육 연구: 통역 교육 및 학습 주체의 수요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1(2), 25-46.
- Lee, S. B. (2016).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of 'scale-referenced' peer assessment for a consecutive interpreting examination.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42(7), 1015-1029.
- Wang, B. (2015). Bridging the gap between interpreting classrooms and real-world interpr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preter Education*, 7(1), 65-73.

Current approach to group interpreting practice and learner perceptions: A focus on undergraduate students

Jiun Huh (huhjiun@ewha.ac.kr)

Department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ndergraduate students' approach to group interpreting practice and their perceptions.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twenty students in undergraduate interpreting program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reveal that these students had a fairly good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group interpreting practice, believing that i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ir interpreting skills. They expressed a preference for feedback comments that emphasized accuracy, vocabulary, syntax, delivery, and non-verbal aspects of communication. They also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receiving peer feedback from various practice partners and sharing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s among themselves. However, they were critical of delinquent attitudes and offensive feedback. They valued in-person practice sessions for their immersive and intuitive experience, while they favored remote practice sessions for their convenience. In light of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useful checklist for group interpreting practice.

Keywords: Interpreting practice; group practice; undergraduate students; peer feedback; self-directed learning

키워드: 통역 스터디, 그룹 스터디, 학부생, 동료 피드백, 자기주도학습

허지운(<https://orcid.org/0000-0002-0458-4299>)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학과 부교수

huhjiun@ewha.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3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